

담양 송순문학상 대상에 김나비 시인

수상작 '소쇄원에서 쓰는 간찰(簡札)'
광주일보 신춘 출신 강대선 우수상

제9회 담양 송순문학상 대상에 김나비(본명 김희숙)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소쇄원에서 쓰는 간찰(簡札)'이며 상금은 2000만원.

담양군 송순문학상운영위원회(위원장 문순태)는 최근 후보작 심사회를 열고 제9회 송순문학상 대상 수상작으로 김나비 시인의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심 심사는 소설에 문순태·전상국·채희운·은미희 작가가, 시 부문은 최두석·손택수·윤금초 시인이 맡았다.

시 부문 심사위원들은 대상작 '소쇄원에서 쓰는 간찰(簡札)'에 대해 "전체적으로 균일한 수준과 안정적인 어법이 믿음 주었으며 인물지리를 육화된 방식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상투성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았다"고



김나비 시인

강대선 시인

밝혔다.

전북 장수 출신의 김나비 시인은 2019년 부산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시집 '오목한 기억'과 시조집 '혼인비행'을 펴냈으며 '동서문학상', '시문학 신인 우수작품상', '안정복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김 시인은 "담양의 역사와 자연을 담은 소쇄원을 비롯한 여러 원림을 통해 선조들의 생활과 사상을 엿보고 현대적인 시각에서 재해석하려 했다"며 "꼭 받고 싶었던 큰 상을 받게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송순문학상 우수상(상금 1000만원)에는 201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자인 강대선 시인의 '오동의 향기' (소설)가 선정됐다. 강 시인은 송순 선생과 관련된 자료를 찾다가 '사화'를 알게 됐으며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 사화에 서사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강 시인은 "'사화'를 통해 당시의 정치 현실과 송순의 관용, 대의 정신을 짚어볼 수 있었다"며 "책상에서 보낸 시간들이 힘들었지만 즐거웠다"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운영하는 송순문학상은 송순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담양만의 특색 있는 문학상 정착과 콘텐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됐다. 시상식은 미정.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다양한 장르로 공유된 아름다운 멜로디

한소리회 11일 광주 디엠홀

한소리회(사진) 제41회 정기공연 '성악과 기악의 Ctrl+C & Ctrl+V 성악과 기악음악에서 공유된 아름다운 멜로디'가 오는 11일 오후 3시 광주 디엠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베르디, 슈베르트 등 작곡가들이 성악과 기악음악에서 공유한 멜로디를 들려주며 클래식을 어렵게 생각하는 일반인들에게 그 매력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복사하기와 붙여넣기' 기능을 의미하는 공연의 제목처럼 이번 무대에서는 다양한 장르에서 공유된 멜로디가 들어있는 곡들을 들려준다.

첫 무대는 '오페라', '군대행진곡', '왕벌들의 비행', '엘리제를 위하여', '하바네라', '축혼행진곡' 등 14곡을 편곡하고 곡에 스토리를 붙여 교혼을

전하는 무대로 꾸며진다. 이어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 '그리운 그 이름은', '일 트로바토레' 중 '별꽃이 타오른다', 포레의 '꿈꾸고 나서' 등을 선보인다.

아울러 슈베르트의 '물 위의 노래', '송어'를 비롯해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 쇼팽의 곡을 편곡한 '내 나이 16살(Seize ans)',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 '방금 그 노래소리는',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등도 만날 수 있다.

총감독 박미애(광주대 음악학과 교수)가 해설을 맡았으며 피아노 반주는 장희경이 한다. 무대에는 소프라노 노현숙·임영란·이나연·장은영·장희정·윤희정·한아름·김주아, 메조소프라노 박정희·조현서 등이 오른다. 문의 062-227-744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에펠드플루트앙상블 '영화같은 내 인생'이 12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에펠드플루트앙상블 제공)

플루트 앙상블로 영화음악 감상하세요

에펠드플루트앙상블 연주회

12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플루트 앙상블로 감상하는 영화음악' 에펠드플루트앙상블(단장 이현경) 제16회 정기연주회 '영화같은 내 인생'이 12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아동 정서교육을 위한 수업을 통해 그동안 1년 남짓 플루트를 배워온 학생들로 구성된 에펠드주니어앙상블과, 풍성한 삶을 위해 플루트를 배우고 있는 성인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이루어진 에펠드플루트앙상블이 함께하는 무대로 의미가 남다르다. 공연 프로그램은 세계명화에 등장

하는 귀에 친숙한 영화음악을 선정해 시민들이 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뮤직'으로 시작해 영화 '라라랜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오페라의 유령',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티파니에서 아침을', '타이타닉', '사운드 오브 뮤직', '캐리비안 해적' 등의 OST를 연주한다.

한편 에펠드플루트앙상블은 프랑스 에펠노르말 음악원을 수석졸업하고 광주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을 역임한 플루티스트 이현경이 지난 2008년 창단한 단체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통해 지역 시민들에게 플루트 앙상블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있다. 전석 1만원. 문의 010-6331-683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지속 가능한 천년 문화유산 시로 남기고 싶었다”

송순문학상 대상 김나비 시인

제9회 송순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김나비 시인은 "천년 담양의 문화유산이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현재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것이기에 이를 시로 남기고 싶었다"며 응모 배경을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의 배를 타고 있어 문학은 과거의 공간에서 현대로 활자라는 배를 타고 공간 여행을 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수상 소감을 말해 달라.

▲ 11월 한 달 동안은 휴대폰을 손에 달고 살았다. 밥을 먹을 때도 외출할 때도 벨 소리에 촉을 세웠다. 휴어 소식이 왔는데 놓칠까 봐 평소 애 받지 않던 모던 전화도 다 받았다. 그러다 수상 소식을 들었는데, 평소 소망했던 문학상이라 너무 기뻐했다.

-어떤 작품인가.

▲ 이번 작품들은 '돌아보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돌아본다는 것은 단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과거를 통해 미래로 나가는 문을 연

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선조들의 정신과 얼을 돌아보고, 내 육신의 근간인 부모를 돌아보고 민초들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더 나은 앞을 향해 나가는 시를 쓰고자 했다.

-담양 관련 시를 쓰기 위해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고 들었다.

▲ 태어난 곳은 전북 장수이지만 대학은 청주(청주대)에서, 대학원은 삼례(우석대)에서 다녔다. 담양과는 큰 인연은 없지만 이번 작품을 쓰기 위해 3년 간 담양을 수도 없이 오갔다. 바람 부는 날도, 눈 내리는 날도 나는 담양을 향해 차를 몰고 있었다. 올 7월과 8월은 담양에 아예 숙소를 정하고 그동안 쓴 글들을 되고했다. 글의 소재가 된 장소를 가고 또 가보면서 시를 다듬었다. 숙소 바깥에 시편들을 A4용지로 출력해서 빨래처럼 널어놓고 배열할 순서를 정했다. 무더운 날씨가었지만 원고들이 날아갈까봐 선풍기도 틀지 못하고 종이들을 이쪽저쪽으로 옮겨가며 차를 정하고 퇴고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현재 청주에서 초등학교교원실용지원 교사

로 재직 중이다. 이전에는 방송국에서 구성작가로 근무했지만 결혼과 출산을 하며 직장을 그만뒀다. 대학 졸업 후 다시 유아교육과에 진학하고 임용고시를 통해 서른네 살에 교사가 됐다. 일과 시를 병행하다 보니 창작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창작 시간을 내려 노력하고 있다.

-문창시절을 어떻게 보셨나.

▲2014년 학습 연구원 교사로 선발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 글을 썼다. 당시 '현대문학' 주간을 그만 둔 정진규 시인이 안성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었다. 2년간 청주에서 안성으로 달려가 정 시인에게 시를 배웠다.

-향후 계획은

▲세상의 낮은 곳에서 시라는 돋보기를 들고 멈춰 서서 타인의 아픔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시인이 되고 싶다. 익숙한 것보다는 낯선 것을 향하는 눈을 갖고도 싶다. 낯설은 불편하지만 그 속에서도 감동을 주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시를 쓰고자 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근무 여성, 남성보다 임금 20% 적어

광주여성가족재단 분석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이 20% 가까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은 최근

젠더인포그래픽스 제10호(격월 발간)를 발간하고 광주시 산하 21개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2020년 만근자 2098명의 임금 자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성 정규직·무기계약직이 남성보다 각각 18.7%, 8.5%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단에 따르면 전체 직원 2098명 중 여성 직원은 564명으로 26.9%에 그쳐 여성 직원의 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1개 기관 중 남녀 임금 격차가 큰 5개 기관의 경우 최상위 직급(1·2급)에 여성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참조.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 판매가격 | 무상보조금 | 도내생산보조금 | 본인부담금 |
|-------|-------|---------|-------|
| 833만원 | 303만원 | 48만원 | 482만원 |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 판매가격 | 무상보조금 | 도내생산보조금 | 본인부담금 |
|-------|-------|---------|-------|
| 650만원 | 330만원 | 48만원 | 272만원 |



나이스1L

| 판매가격 | 무상보조금 | 본인부담금 |
|-------|-------|-------|
| 462만원 | 330만원 | 132만원 |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